수용성 접착제 시장성 "없다"

PU접착제 수성화 난항 … 용제형과 현저한 가격차

최근 무용제접착제 시장화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더딘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PU접착제시장의 수성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환경문제와 관련 적신호가 되고 있다.

VOC 규제현황

(단위 : 100만달러, %)

구 분	면 적	잔존용제		톨루엔 함량	
		기 존	1996	기 존	1996
식품용 PU필름	㎡	10mg	6mg	5mg	3mg

관련업계에 따르면, PU접착제시장의 수성화는 94년 동성화학과 SKI가 주도하여 「선개발 후시장화」라는 전략을 추진할 정도로 기존 용제형을 빠르게 대체해 갈 것으로 기대됐다.

그러나, 95년에 이어 96년에도 상용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.

이같은 원인은 물성면(접착력)에서 아직까지 용제형을 따라잡을 수 없는 문제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95년 원료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가공기업의 상대적인 원가절감노력이 용제형쪽을 크게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.

실제 가격면에서도 기존 용제형은 Kg당 1000원선인 반면, 수용성은 그 두배인 2100원으로 아직까지 물성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에따라 수용성PU는 합성피혁 함침용이나 천연피혁 코팅용, 도료용, 가구용 등으로 전량 사용되고 있으며, 이같은 상황은 96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.

더욱이 ㎡당 잔존용제 10mg에 대해 톨루엔 5mg으로 제한하고 있는 VOC규제가 식품용 필름에만 국한돼 전체 접착제산업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수용성 PU접착제의 시장화를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이로인해 국내 수용성 PU 생산기업인 동성화학과 SKI, 합동화학은 접착제 시상품을 출시해놓고도 수요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전량 가죽용, 코팅용, 직물가공용으로 판매하는 등 기술개발에 따른 물성강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가능한 접착제 판매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.

한편, 96년1월부터 VOC규제가 잔존용제 6mg가운데 톨루엔 3mg으로 강화됐으나 생산기업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접착제시장으로까지 그 적용이 확산될지 여부도 불투명해 당분간 PU접착제의 수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.

<화학저널 1996/2/5>